

# 한국-베트남 스타트업 교류 박람회 개최

### 'MEGA US EXPO 2024' 개막... 양국 스타트업·기업 간 협력 강화 위해 호찌민시에 국내 스타트업 약 165개사 모여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시 화이트펠리스 컨벤션센터에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스타트업 및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EGA US EXPO(메가어스 엑스포) 2024'가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MEGA US EXPO(메가어스 엑스포) 2024'는 전북센터와 호찌민시 과학기술국(DOST)의 협력을 바탕으로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자치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센터, 전북대학교, 전북테크노파크 등 전국 26개의 창업지원기관과 165개 사의 스타트업(2023년 : 20개 기관, 128개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등 전국 단위 행사로 참가 규모가 확대되며, 전북 주도의 전국 행사로 발돋움하였다.

이번 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스타트업 부스 전시 △한-베 대학생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유니브 스타' △비즈니스 상담회 △한-베 스타트업 투자 IR 벤처 스타 △라이브 커머스 △베트남 트렌드 이벤트 △투자자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시 화이트펠리스 컨벤션센터에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스타트업 및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EGA US EXPO(메가어스 엑스포) 2024'가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의 네트워킹 등이 운영된다. 특히, 올해 신설된 '한-베 스타트업 투자 IR 벤처 스타' 프로그램은 박람회

성과 창출을 위하여 한국-베트남 주요 VC 16개 사가 참여하여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이만호 기자

지난해에는 680만 불 수출계약과 5,600만 불 규모의 MOU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양국의 스타트업 간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관 간의 다양한 MOU 체결식도 진행하게 되는데, MEGA US EXPO(메가어스 엑스포) 2024를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 기업·기관 간의 창업기업 진출 협력, 협력 사업 개발, 네트워크 교류 등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강영재 전북센터 센터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양국의 많은 기관, 스타트업, 단체 등이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이번 행사가 양국 스타트업 교류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서 전북자치도 창업지원과장은 "베트남과 한국은 경제, 문화,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라며, "스타트업이 양국 경제의 혁신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MEGA US EXPO 2024'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도, 배달 플랫폼 등록 음식점 위생단속

### 내달 13일까지 실시

전북특별자치도는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소비환경 변화로 인해 배달음식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배달 플랫폼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3주간 위생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배달과 포장만을 전문으로 하며 흡을 운영하지 않는 상위 순위 음식점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단속의 중점 사항으로는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 △조리실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부패·변질된 원료 및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여부 등이 포함된다.

법적으로 음식점 영업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식품을 사용·판매해서는 안 되며, 폐기용 제품을 별도의 표기 없이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것

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동욱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배달 전문 음식점들이 늘어남에 따라 위생 관리가 취약할 수 있다"며, "이번 위생 단속을 통해 더욱 안전한 먹거리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이와 함께 식품위생을 포함한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서 불법행위 발견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전화(063-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 도내 공유 유아숲 체험원, 현장점검 실시

### 총 15곳 모두 양호한 상태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유아들의 안전하고 적절한 체험 환경 보장하기 위해 공유 유아숲 체험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2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도내 공유 유아숲 체험원 1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모든 체험원이 유아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에서는 체험원 내 체험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응급처치 키트·구급약 등 안전용품 비치 여부 및 비상연락처가 적절히 비치되어 있는지 점검했다.

또한, 화장실과 휴식 공간의 청결 상태, 놀이기구와 벤치 등의 시설물 상태도 꼼꼼히 살폈다.

또한, 기본적인 안전 외에도 체험원 내 식물들의 건강 상태와 유해성 여부, 프로그램 적합성, 유아숲 지도사들

의 전문성과 직무교육 참석 여부도 세심히 확인했다.

점검 결과, 전반적인 안전성과 적합성, 청결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 후유로 인해 노면이 패인 곳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됐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유아숲 체험원을 포함한 도내 생활권에 산림 체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라며, "도내 어린이들이 숲에서 힐링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수준 높은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아숲 체험원은 유아와 어린이들이 자연과 친숙해지면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하는 곳으로, 도내에는 21개소가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까지 순창군, 고창군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 8월말까지 고온지속... "농작물 병해충 적기방제 중요"

### 도 농업기술원, 지속적 모니터링·적기 방제로 피해 최소화 당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에서는 8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온에 대비해 벼, 옥수수, 콩, 참깨 등 주요 농작물에 대한 진단 및 방제기술 정보를 발표하고, 농가에 적기방제를 당부했다.

최근 기상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1.6℃ 높고, 최저기온은 2.4℃ 상승해 고온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높은 야간기온은 식물의 양분 이동을 방해해

품질 저하와 병해충 발생을 촉진시키며, 재해에 대한 저항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

벼의 경우, 물을 자주 갈라대어 토양 온도를 낮추고 물을 높게 대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이앙이 늦은 2모작 논에서는 출수가 시작되기 전후로 이삭도열병과 세균 비알마름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출수 3일 전부터 출수 후 7일 이내에 1~2회 종합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고온이 지속되면서 벼 해충인 흑점나방과 멸구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포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나방이 날아다니거나 벼대 밑부분에 멸구가 관찰되면 즉시 방제를 실시해 밀도를 낮춰야 한다.

고추 탄저병은 고온다습하고 비가 올 때 확산되기 쉽고, 발병 후에는 급속도로 전염되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담배나방, 총채벌레 등과 함께 예방적 방제를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과 등에서 발생하는 복숭아순나방

과 심식나방류 또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수시로 포장을 살펴 피해 과실이나 잎 등을 신속히 제거해야 하며, 수확기가 가까운 경우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켜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이정민 전북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이상고온이 지속됨에 따라 벼를 비롯한 주요 작물에서 해충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기 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역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현장점검 실시

### 사업 공정률·안전관리 대책·현장 관계자 건의 사항 청취 등 점검 올해 400억원 투입·도내 풍수해 생활권 사업 12개 지구 정비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2일 김제역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장을 점검하고, 김제시와 현장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호우와 태풍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해,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사업의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대책을 확인하며, 현장 관계자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제역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414억6,000만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대규모 재해

예방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김제 두월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2개 설치와 우수관로 개량 등을 포함하며, 김제역 인근의 상습 침수 구역 건물 750동과 농경지 139헥타르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도내 8개 시군 12개 지구에 총 400억원을 투입해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2025년도 재해 예방 신규사

업 반영을 위해 도와 시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협력해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예측이 어려운 기상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사회서비스원, 관리자 리더십 교육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22일 사회서비스원 교육장에서 소속시설 최고·중간관리자 30여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비전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진행됐다.

유쾌한 리더십을 전하는 김주연 강사(경영학 박사)가 강의를 맡았다. /뉴스

다양한 활동과 토의를 통해 관리자의 이해를 돕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습으로 구성됐다.

특히 '변화명'이라는 개념을 통해 조직의 리더가 모든 변화를 인지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이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구성원의 주도성을 성장시키기 위한 배움과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만호 기자

장수군 공고 제2024-862호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 도로구역결정일로부터 ~ 2030. 12. 31.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도로 명칭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백운~천천(1단계) 지방도 확포장공사	지방도 제726호선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진안군 백운면 노촌리 일원	• 연장 : 2.5km • 폭원 : 9.0m (왕복2차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장수시 원산군 호자로 225)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및 면적

• 지방도726호선 중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진안군 백운면 노촌리(2.5km) 구간으로 지방도 단선구간 도로를 신설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접근성 개선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관광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하고자 함.

### 3.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면도

• 계획 생략(열람장소 비치)

### 4. 열람 및 의견서(이의신청) 제출

- 기간 : 신문 게재일로부터 15일간
- 장소 :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 의견제출(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작성·제출(열람장소 의견서 비치)
- 기타 문의사항 :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063-350-25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기타사항

•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한 주소나 거주 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본 공고를 갈음함.

2024년 8월 14일 장수군 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